유럽 사법재판소 "영국, 브렉시트 번복 가능"

영국의회 비준 동의 표결 하루 앞두고 판결
'제2 국민투표' 실시 주장 탄력 받을 듯
의회 반대 부딪힌 메이 총리, 표결 연기 가능성도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비준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ECJ가 이같이 유권해석함으로써 영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브렉시트에 관한 '제2 국민투표' 실시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CJ는 이날 판결문에서 "영국은 EU에서 탈퇴하려는 의도를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ECJ 판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한 ECJ 법무관도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영국이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스코틀랜드 법원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를 물었고,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ECJ에 의뢰했다.

이에 따라 ECJ는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심리를 지난달 27일 시작했고,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해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스코틀랜드 법원은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ECJ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면 의회가 영국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비준동의 표결을 할 때 의회가 선택 가능한 옵션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통상적인 해석대로라면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을 동의해 영국이 내년 3월 29일 EU에서 질서 있게 탈퇴하도록 하거나, 비준동의를 거부해 '노 딜' 상태로 EU를 탈퇴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동안 스코틀랜드 의원들은 만약 ECJ에서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번복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다면 국민투표 재실시도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ECJ의 선고로 인해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 재실시를 요구하는 주장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1일 예정된 영국 의회의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영국과 EU가 우여곡절 끝에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영국 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함에 따라 이번 ECJ 판결을 계기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상황변화를 이유로 의회표결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허리케인 휩쓸었던 美 남동부 지역 이번엔 눈폭풍 강타

미국 남동부 지역에 눈폭풍이 엄습해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고 1000여대의 항공기가 결항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눈폭풍 '디에고'(Diego)가 주말인 지난 8일밤(이하 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 주 등에 비와 눈, 진눈깨비를 집중적으로 뿌렸다고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이 9일 보도했다.

이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를 포함해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 등에 30만건의 정전사고가 접수됐다. 정전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만 24만건이 집중됐다. 또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더글러스 국제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 1300편의 운항이 이틀간 결항했다.

적설량이 30cm에 달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주요 도로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에서는 수백건의 눈 관련 교통사고가 접수됐다. 이들 주 정부는 10일 휴교령을 내렸다.

눈폭풍은 10일까지 눈을 쏟은뒤 방향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로 틀어 찬비로 바뀔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적도 부근 태평양 해수 온도가 상승해 겨울 강수량이 많아지는 '엘 니뇨' 현상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눈폭풍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한편, 사우스·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 등 남동부 6개 주에는 지난 10월 허리케인 '마이클'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눈폭풍 '디에고'가 몰아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렉싱턴에서 9일(현지시간) 자동차들이 눈 쌓인 도로 위를 거북이 걸음으로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 4주째…부유세 부활·마크롱 퇴진 요구

금주 담화문 확산·수습 갈림길

파리·리옹·마르세유 등 프랑스 전역에서 8일(현지시간) 동시다발로 진행된 4차 '노란 조끼' 시위가 마무리됐지만,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사태를 촉발했던 유류세 인상은 철회됐지만, 현장에서는 부유세 부활과 최저임금 인상, 대입제도 개편 반대에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퇴진 요구까지 등장하면서 상황이 심상찮게 전개되는 형국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주 초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을 담아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태가 확산과 수습 국면의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

유류세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17일 처음 촉발된 노란 조끼 시위는 이후 매주말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었다. 시위는 횟수를 거듭하며 폭력·과격 양상으로 흘렀고 시위대의 요구 사항도 부유세 부활, 연금개혁 퇴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점차 늘어났다. 급기야 시위 현장에서는 '마크롱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자칫 전면적인 반(反)정부 시위 양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작년 5월 취임 직후 50~60%를 넘나들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노란 조끼 시위 조사에서 20%대까지 추락했다. 취임 2년도 채 안 돼 최대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61〉 이봉길

권모술수에 뛰어난 헌·목종때 중신

이봉길(李逢吉, 758~835)의 자는 허주로 섬서성 출신이다. 당 헌종, 목종, 경종때의 중신으로 정적 제거에 뛰어나고 권모술수에 능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당왕조 초기 18학사를 역임한 이현도의 증손이다. 진사시험에 합격한 후 내몽골의 호화호특 지방을 다스린 진무절도사 범희조의 참모가 되었다. 덕종은 그의 추천을 받아 문하성 좌습유로 기용했다. 이후 좌보궐, 시어사가 되었다. 809년 예부의 사부낭중을 거쳐 상서성 우사낭중으로 승진했다. 811년 급사중이 되었다. 814년 중서성 중서사인을 거쳐 816년 문하시중 겸 동중서문하평장사로 임명되어 재상 지위에 올라섰다.

헌종은 번진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삭번(削藩) 정책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왕승종의 성덕진과 오원제의 회서진 정벌에 주력했다. 치청절도사 이사도는 자객을 장안에 보내 재상 무원형을 암살했다. 배도는 개천으로 굴러 떨어져 간신히 죽음을 모면했다. 회서진과의 싸움은 9만의 병사를 투입했음에도 성과 없이 4년이 흘러갔다. 번진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피하려는 온건한 입장의 이봉길은 주청하기를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식량도 바닥났으니 퇴각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배도는 이에 대해 "신이 청컨대 홀로 가서 전쟁을 감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장했다. 배도의 충성심에 깊이 감동한 헌종은 그를 동평장사 겸 회서절도사로 삼았다. 배도와의 갈등이 깊어졌다. 비부원외랑 장숙을 간의대부로 삼으려 하자 "장숙을 채용하시려면 신을 물러나게 하면 마침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반대했다. 회서 전투에 소극적인 이봉길은 재상에서 쫓겨나 검남동천절도사로 좌천되었다.

헌종이 죽고 목종이 재위에 올랐다. 조정을 배도와 함께 원진이 이끌었는데 상대적으로 번진에 온건한 원진과 강경한 입장인 배도는 사사건건 충돌하였다. 절도사로 좌천돼 있던 이봉길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 그는 조카인 이중언을 시켜 실세 환관 왕수징과 관계를 맺으려 하였다. 왕수징은 배도와 사이가 매우 나빴다. 822년 5월 그를 병부시랑으로 발탁해 장안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우방이라는 자가 원진의 사주를 받아 배도를 죽이려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재상간의 갈등에 놀란 목종은 좌복야 한고, 급사중 정담, 병부시랑 이봉길에게 어사대의 조사를 받도록 명했다. 조사 중에 원진이 이간책을 쓰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6월 초 배도를 우복야, 원진을 동주자사로 삼고 이봉길을 문하시랑, 동평장사로 임명한다는 조서가 발표되었다. 재차 재상으로 복귀한 것이다.

이봉길의 전횡이 시작되었다. 823년 우승유를 중서시랑, 동평장사 이덕유를 절서관찰사로 삼으니 이덕유의 원망이 깊어졌다. 좌복야 배도를 산남서도절도사로 좌천시키는데 성공했다. 지추밀 왕수징과 더불어 조정사를 좌지우지했다. 오직 한림학사 이신만이 황제의 신임을 바탕으로 그들의 전횡을 견제하였다. 그는 이신을 자리가 빈 어사중승으로 천거하였다. 이신은 경조윤?어사대부 한유와 자주 다투었다. 이를 빌미로 황제에게 한유를 병부시랑으로 이신을 강서관찰사로 삼도록 주청했다. 824년 이신은 단주사마로 좌천되었다. 이봉길 일파가 조정을 장악했다. 장우신, 이중언, 이속지 등 측근 8명과 그들의 속관 8명을 합해 8관(關) 16자(子)라 하였다. 한림학사 위처후가 "배도는 공훈이 크고 명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허물이 없는데도 벼슬을 깎아내렸습니다."고 상소하니 황제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며 배도에게 동평장사 직위를 내렸다.

824년 목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봉길의 위세는 여전했다. 825년에 접어들자 지방에 좌천된 배도를 다시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는 무소라는 사람이 배도의 권유로 재상 이봉길을 죽이려 한다고 고변케 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그의 음모가 드러났다. 결국 경종은 배도를 재상으로 임명하고 사공으로 승진시켰다. 826년 동평장사·산남동도절도사로 임명되어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이로서 오랜 정치생명이 종언을 고하였다.

신창동 2층 근린상가, 급매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가도빌딩 4층중 2층 201호
- 삼거리 코너 건물, 주차편리, 전망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감정/시세-10억**
- 급매 - 상담후
- 문의. 010-3605-5000